



연방 수사국 공개 수배

알레한드로 차오 데 베노스

국제비상경제권법(IEPA) 위반 음모



설명

별칭: 알레한드로 차오 데 베노스 데 레 이 페레스, 조선일, 조선일

| | |
|-------------------------|-----------------|
| 사용된 생년월일: 1974년 12월 24일 | 출생지: 스페인 |
| 머리: 갈색 | 눈: 갈색 |
| 키: 대략 5 피트 8 인치 | 몸무게: 대략 250 파운드 |
| 성별: 남성 | 인종: 백인 (히스패닉) |
| 직업: 사업가, IT 컨설턴트 | 국적: 스페인 |
| NCIC: W046384133 | |

비고

알레한드로 차오 데 베노스는 스페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

알레한드로 차오 데 베노스는 국제 비상 경제 권력 법 (IEPA)을 위반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수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시민과 협력하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를 북한에 불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는 공모를 했습니다.

2018년 초쯤부터 친북 친선단체인 '한국친선협회' 창립자인 차오 드 베노스는 북한의 이익을 위해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를 조직했습니다. 차오 드 베노스는 이 회의에서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할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를 영입하고, 이를 위해 2019년 4월 미국 제재를 위반해 북한 여행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오 드 베노스는 이 전문가의 회의 참가를 위해 북한 정부의 승인을 조율했고 이후 계속 공모해 2020년 북한에서 제2차 암호화폐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오 드 베노스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이러한 활동과 그 음모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을 은폐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는 2019년 11월 미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이 계획과 2020년 계획된 2차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공동 공모자인 크리스토퍼 더글라스 엠스와 차오 드 베노스는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법률상 요구되는 북한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차오 드 베노스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공모혐의로 기소된 후 2022년 1월 27일 뉴욕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연방법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도주 위험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FBI 지국 또는 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지국: 뉴욕

